

남성독거노인의 홀로 살아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

석희정

(경남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남성독거노인들이 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심리사회적, 신체적 고통의 내용과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기 과정과 재구성된 삶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남성독거노인들의 홀로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프로그램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해석학적 근거이론방법으로 접근했으며 총 6명의 남성독거노인들이 참여했다.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구성했으며 자료 분석은 Rennie(2007)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미단위를 분석하고 범주화 작업을 통해 총 12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홀로 살아가는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는 「고립의 늪에서 망각한 자기존재를 인수하고 복된 죽음을 준비하기」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성독거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의 구성, 남성독거노인의 홀로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의미치료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남성독거노인, 홀로살기, 해석학적 근거이론방법, 사회적 지지프로그램

1. 서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2012)의 『독거노인 종합지원 대책』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 34.2%로 부부가구(33.6%)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기준 독거노인의 96.7%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지만 주1회 이상 접촉하는 독거노인의 비율은 34.9%

* 이 논문은 2013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에 지나지 않으며, 8.6%는 3개월에 1회 이하의 접촉을 하고 있어 독거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개념¹⁾은 학자들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주로 거주형태, 가구유형, 생활양식 등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유광수·박현선, 2003; 최영, 2008; 보건복지부, 2012).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독거노인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부부가구 노인이나 자녀동거가구 노인에 비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고, 사회적지지망의 위축으로 인해 취약한 사회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악화로 인해 삶의 질 또한 열악해지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원미라, 2013; Smith et al., 2002).

독거노인가구의 심리, 사회,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노인의 소득실태와 소득보장방안 등 경제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이가옥, 1994; 석재은·김태완, 2000; 정경희 외, 2005), 독거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김미영, 1997; 유광수·박현선, 2003), 생활만족도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김기태·박봉길, 2000; 전길양·김정옥, 2000; 최용민·이상주, 2003; 허선영, 2003), 사회적 지지망과 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황미영, 1999; 박경숙, 2000; 허선영, 2003)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소수의 연구이지만 독거노인의 일상생활과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김주성, 1999; 김태연 외, 1999; 정경옥, 1999; 양승애, 2002; 전용화, 2006; 심문숙, 2007)가 수행되었다.

국내의 연구들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들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해주지만 간과한 점이 있다면 젠더의 관점과 차이를 반영하지 않거나 반영하더라도 주로 여성독거노인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어 홀로 사는 남성노인의 고유한 경험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더구나 여성들이 젠더화된 경험과 맥락 속에서 노년을 맞이하듯이 우리사회의 남성들도 가부장적 패권주의와 그에 따른 성역할을 내면화시킴으로써 독특한 그들만의 노년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남성노인의 경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쉽게도 국내연구에서는 남성독거노인들의 문제가 여성독거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홀로 사는 남성노인의 삶을 주제로 한 연구는 쪽방 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허소영, 2009)를 제외하고는 전무하였고, 남성독거노인을 포함한 연구에서도 남녀노인의 일상생활과 욕구조사(송민경, 2004)나 쪽방지역의 지리적 환경에서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권지성, 2008; 김효진, 2009) 등에 국한되어 있어 남성독거노인들의 고유한 삶의 경험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무엇보다 이들 연구는 남성독거노인들이 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사회적 고통과 욕구를 경험하고, 이러한 삶의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홀로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총체적이고 역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남성독거노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실존적 의미의

1)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은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와도 거주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노인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양받을 가족이 없어 혼자서 생활하는 노인을 뜻한다. 여기서 가족의 부재는 법률상 자녀가 있더라도 자녀들이 실제 부양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김미영, 1997; 백학영, 2006 재인용).

역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남성독거노인의 삶을 구성해온 다양한 경험층위를 이해하고 이들의 홀로 살아가는 과정과 의미를 총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질적 연구로 접근하고자 한다.

2. 남성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홀로 살아가는 경험은 남성노인들이 여성노인들에 비해 더 불리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Hughes and Waite, 2002). 독거노인들의 생애사적 전환과정에 주목한 Rubinstein(1987)은 노년기 남성들이 홀로 산다는 것의 이중적 의미를 밝혀냈는데 이들에게 홀로 산다는 것은 주거의 독립이면서 혼자 죽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속박 당하는 것이었고, 자기통제감을 갖는 반면에 통제력의 결핍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것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홀로 사는 것은 독립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동시에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안정적인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들 수 있다. 특히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더라도 빈곤선 이하의 궁핍한 생계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정석 역, 2000). 국내 연구에서도 정부생계비 지원으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의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를 최대한 줄여가며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호영·백학영, 2003; 백학영, 2006).

홀로 사는 노인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문제는 역할상실과 사회적 관계축소로 인해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 등 심리, 정서적 문제이다(김태연 외, 1999; 심문숙, 2007; Victor et al., 2002).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남성성의 영향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형성의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파가 극단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다. 노인 자살자의 70%가 남성노인이고, 전반적으로 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을 심각하게 경험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자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자살을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엄태완, 2007; 허소영, 2009 재인용).

사회경제적 지위와 소속의 상실이 개인의 여가활동에 적잖은 타격을 주듯이 여가활동은 한 개인이 어느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연구에 의하면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주로 TV시청, 라디오 청취, 노인정에서 소일하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하루 종일 방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호영·백학영, 2003). 또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가 대개 여성화되어 있거나 여성 지향적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남성노인들은 지역사회의 여가시설들을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은 받고 있다(Davidson et al., 2003; Russell, 2007).

지금까지 독거노인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은 이들의 경제적 특성, 건강상태,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 사회적 지지망과 자원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경제적 특성에 대한 연구(이가을, 1994; 석재은·김태완, 2000; 정경희 외, 2005)에서 동거가족이 없거나 비 동거 가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공적이전이나 지역사회 자원에 의지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독거노인은 신체적 건강상태 이외에 정신건강에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인순, 1999; 유광수·박현선, 2003). 또한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 경제적으로 기반이 열악하고 사회적 지위나 가족 내 역할을 상실한 노인들이 고독감과 함께 소외되는 것으로 보고한다(김기태·박봉길, 2000; 최용민·이상주, 2003; 허선영, 2003).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없는 독거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황미영, 1999; 박경숙, 2000; 허선영, 2003).

3. 연구방법

1)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방법

Glaser와 Strauss(1967)에 의해 개발된 근거이론(grounded theory)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근거자료로부터 이론을 추출하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질적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 주관성을 배제하여 연구방법론으로 널리 차용되었다. 하지만 근거이론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지나치게 실증주의적 관점에 치우쳐 근거자료에서 도출된 개념과 범주 등에 대한 합의만을 강조하거나 자료 분석 절차나 방법만을 중시하는 등 해석학적 성격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Charmez, 2004; Rennie, 2007).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닌 Rennie(2006)는 근거이론방법론에 해석학을 이식한 해석학적 근거이론방법론을 발전시켰다.

Rennie(2000; 2006)는 기존 근거이론의 절차와는 다른 방법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Strauss와 Corbin(1990)이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를 구성하는 개방코딩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진술 그대로의 기호화(in vivo code)를 강조한다면, Rennie(2006)는 범주란 체화된 범주화(embodied categorizing)로서 해석자가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그 텍스트의 의미를 기억, 연상, 직관, 어휘 등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주관적 이해의 지평을 적극 활용하여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고 범주화할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로 Strauss와 Corbin은 줄 단위 분석(line by line)을 통해 개념을 명명하고 개념 간 속성과 관계의 지속적 비교를 통해 하위 범주에서 상위범주로 추상화시켜 나간다면 Rennie는 자료에서 의미단위(meaning unit)를 분석해내고 이것이 진행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범주가 생성된다고 본다. 예컨대 자료의 의미는 그것의 부분적 의미와 전체적 의미의 해석적 순환과정에서 생성된다. 즉 텍스트 전체의 의미는 부분적 의미의 총체화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부분이 각각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전체적 의미의 맥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의미단위 분석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핵심적으로 드러내주는 어떤 진술이나 문구를 포착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의미단위들은 전체가 담는 총체적 의미와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Rennie, 2006; 임혜영·이혁구, 2013; 재인용).

본 연구는 Rennie가 제안한 해석학적 근거이론의 방법적 접근을 활용해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특

히 해석학적 근거이론방법이 본 연구에 적합한 이유는 남성독거노인들이 가장권위의 상실과 가정해체의 상황에서 어떤 심리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고 어떻게 홀로살기를 결정하는지 그 구체적인 경험의 경로를 따라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근거이론의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인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 case selection) 방법을 활용하여 선정했다. 세평적 사례선택이란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연구 참여자를 의뢰하는 것이다. 우선 지방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재가복지담당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 10명의 남성독거노인들을 소개받았고 본격적인 연구면담에 앞서 예비면담과정을 거쳤다. 이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최종적으로 동의한 6명과 본격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에서 준수해야만 하는 연구 참여자의 비밀과 사생활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심층면담과정에서의 녹취에 대한 동의, 심층면담 지속에 대한 자발적 동의, 연구의 목적과 취지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회의 포커스 면담과 1인당 2회에 걸친 심층인터뷰를 수행했다. 근거이론방법의 자료수집원칙은 포화의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많은 수의 연구 참여자가 요청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6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여 풍부한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1인당 총 3회의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포화의 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자녀	경제상태	독거기간	최종직업
참여자1	76세	초졸	이혼	기독교	2남2녀	수급	20년	일용직
참여자2	72세	중졸	사별	-	1남3녀	군인연금	3년	제조공장
참여자3	71세	초졸	미혼	-	-	수급	30년	외양선원
참여자4	74세	고졸	이혼	기독교	3녀	수급	15년	주유소관리직
참여자5	76세	초중퇴	별거	-	1남	공공근로	15년	빌딩관리직
참여자6	70세	초졸	이혼	-	1남 1녀	공공근로	10년	노점상

3) 자료수집

실체이론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심층면담과 문헌조사를 통해 구성했다. 심층면담은 1회당 120분에서 150분이 소요되었다. 심층면담은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누두(漏斗)접근(Funnel-like approach) 방식으로 수행했다. 이는 면접초기에는 개방형 면담으로 폭넓게 경험을 청취한 후 점진적으로 범위와 주제를 좁혀가는 방법이다. 자료 수집은 2013년 7월 10일부터 자료 분석이 종료된 후인 2013년 11월 10일까지 수행했다.

4) 자료분석

심층면담 내용을 전시하여 원 자료(raw data)를 구성한 후 이를 지속적 비교방법으로 검토했고 추가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자료를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했다. 자료는 의미단위분석, 범주화, 핵심범주 구성 순으로 분석했다.

(1) 의미단위분석

의미단위(meaning units)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관련된 내용이나 주제 등을 내포하고 있는 자료의 분절을 의미한다(Levitt et al., 2006). 의미단위는 원 자료를 자세히 읽어가면서 단위를 나누었다.

(2) 범주화

범주화는 개별적 의미단위들의 공통점을 찾아 이를 개념화하는 작업으로 기존의 근거이론 방법론의 개방코딩(open coding)과 유사하다. 연구자들은 의미단위를 코드화하면서 의미단위를 묶는 상위범주를 발전시켰다.

(3) 핵심범주구성

핵심범주란 구성된 상위범주구조가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기록에 나타난 경험 등을 관통하고 아우르는 핵심적 발견을 추상화된 개념이나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기존 근거이론방법의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에 해당한다.

4. 연구결과

1) 해석학적 범주구성

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11개의 의미단위, 3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2개의 범주를 구성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홀로 살아가는 경험의 해석학적 범주 구성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제대후 결혼함, 월남파병을 다녀와 결혼함, 지인의 소개로 연애 결혼함, 중신아비 소개로 혼인함, 가난한 시절에 가정을 이룸, 사실혼으로 시작	혼인을 통한 가족관계로의 이입	가족의 생계를 떠안음
부친의 노름빚을 대리 변제함, 건자재를 몰래 빼돌려 한몫 챙김, 일찍이 독립하여 가족생계를 책임짐, 생계전선에 뛰어듦, 수년간의 해외파견근무, 타지에서 일하며 혼자 생활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짊어짐	
자식들을 출가시킴, 박봉의 군인월급으로 자식들 뒷바라지, 아내 병간호를 위해 퇴직함, 지극정성으로 간호함, 집안 살림을 도맡음	가족에 대한 헌신과 보살핌	
아내의 불임으로 아이 입양함, 큰형의 아들을 양자로 입적함	대를 이을 아들의 갈망	
아내의 외도, 가정을 등한시하고 생활비를 탕진, 혼외자식을 낳음, 바람난 여자는 가정을 버린다는 편견에 사로잡힘	남편의 존재감을 추락시킨 아내의 불륜	가장권위의 추락
경제력 있는 아내로부터 무시당함, 돈밖에 모르는 아내와의 대화단절, 남편의 존재를 능멸함	경제력 있는 아내의 능멸	
사업투자로 전재산을 탕진, 증권투자로 무일푼신세, 자동차 부품공장의 도산, 생활고로 인해 아내와 잦은 부부싸움, 남편의 대인관계와 씩씩이를 못마땅하게 여김, 생계전선 속에서 과격해진 아내	가장권위의 토대인 경제기반의 상실	
자식들조차 아버지 입장을 헤아려주지 않음, 자식들 모두 엄마의 편에 서있음, 가정에 소홀했던 자신에게 등 돌림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함	극단적인 양가감정
아내의 외도로 생긴 자식의 출생비밀을 혼자 간직함, 아내의 잘못을 덮어주고자 노력함, 지인들의 비난을 혼자 감수함, 남자 체면 때문에 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함, 괴팍한 아내성격을 참고 살아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름	
술만 마시면 부부싸움, 가정파괴의 주범인 아내를 향한 분노감 치밀어 오름, 여물게 살지 못한 자신을 자책함, 아내의 불륜을 용서할 수 없음, 울분을 술로 삭힘, 배신감을 혼자서 감내함, 매일 술친구들과	왜곡된 방식의 도피	

어울림 아내의 그릇된 양육방식으로 자식마저 망가짐, 양육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김, 가정불화의 원인을 공함 탓으로 돌림, 가족에게 당당함, 부부싸움의 원인제공자는 자신이 아닌 아내	가정불화의 책임전가	
복잡한 가정사로 퇴사, 집장만도 하지 않음, 저축을 하지 않고 술친구들과 어울림	책무 벗어던지기	과국으로 내몰림
바깥으로 곪들며 가정에 소홀해짐, 집이 싫어짐, 가장의 마음을 이해받지 못함, 수년간 각방생활, 더 이상 대화 불가능함	심리적 이혼상태	
혼외자녀들이 이혼서류를 가져옴, 실직 후 아내의 이혼요구, 사업부도로 이혼 당함, 가족을 부양한 능력이 없어 부동산을 분배하고 이혼함, 기초생활비를 수급받기 위한 아내의 요구로 이혼함, 생계가 곤란한 아내의 요구에 이혼함	가족구성원들의 요구로 청산된 법적 관계	
집나옴, 혼자 생활함, 일에 몰입함, 사업실패와 이혼 후 떠돌며 혼자 생활함, 혼자서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생활함, 위암수술 후 여관방에서 혼자 생활함, 아내와 자녀 가출 후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감	일거리를 찾아 떠돌며 결속의 연결고리 만들기	유사가족 만들기
직장동료들과 가깝게 지냄, 직장친구들 덕분에 외롭지 않음, 직장동료들과 일상을 함께 보냄, 동료들과 한 가족 같이 생활함, 남에게 당당함, 동변상련의 타인과 나눔	노동을 통한 유대관계형성	
사회적 관계상실로 외로움, 외로움에 점점 익숙해짐, 집안에 틀어박혀있음, 답답함에 잠조차 이루지 못함, 대화할 사람이 없음, 가족의 빈자리로 커지는 그리움, 외로움을 달래줄 이성친구와 만나고 싶음	습벽화된 고립감	자기존재의 망각
독거노인의 벗이 된 술과 담배, 술과 담배를 찾음, 홀로된 신세에 매일 술마심	물질적 의존성	
술기운에 자살생각,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시도함, 삶의 의미를 잃어버림, 수차례 자살시도에도 죽지 않는 질긴 목숨	수차례 자살을 시도함	
죽음에 대한 불안, 쓸쓸히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공포, 주검조차 거두어줄 가족 하나 없음, 자신의 주검을 누군가 거두어주길 바램, 집안도구들조차 작동을 멈춰버림	홀로 죽는 것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갑작스런 마비증세로 쓰러짐, 몸이 아플 때 힘들, 고열제 후유증에 시달림, 일을 할 수 없음	건강악화로 인한 노동력상실	
노동력상실로 힘겨운 경제사정, 만약의 일을 대비할 비상금조차 없음, 영안실조차 돈 없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음	죽음불안으로 인한 물질적 집착	
가진 돈 없으면 친구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살이 이치, 생활력이 있어야 유지되는 대인관계, 남에게 동정받기 싫음, 가까운 지인의 부고소식조차 모름, 동료 장례식조차 가지 못함, 가진 게 없으면 관계도 사라짐, 이웃과의 왕래조차 단절, 친구를 사귄 수 없음, 이성교제조차 꺼려짐, 마음 터놓고 지낼 친구가 없음, 돈 없으면 사람취급을 받지 못함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관계의 위축	대인관계의 위축과 단절

<p>집밖에 거의 나가지 않음, 술친구들과 거리 둠, 집에 틀어박힘, 술친구들을 피해 혼자 지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관계단절, 배우지 못한 처지에 위축됨, 만사가 다 귀찮음</p>	<p>홀로 칩거함</p>	
<p>달러만 사용하다 간첩으로 오해받음,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고역을 겪으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음, 보안대에 근무하는 조카에게 신원조회가 들어옴</p>	<p>이방인으로 소외됨</p>	
<p>아내와의 관계회복을 돌이킬 수 없음, 오랫동안 떨어진 가족과의 정조차 사라짐, 남부럽게 잘 사는 혼외자식들,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를 외면함</p>	<p>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p>	
<p>각자 먹고 살기조차 바쁜 자식들, 자식 집에 찾아가기 부담스러움, 어느새 부담스러운 부모자식 관계, 자식들 때문에 수급혜택을 받지 못함, 호적정리에 응하지 않는 자식들, 무늬만 가족</p>	<p>부담스러운 존재</p>	
<p>명절 때조차 찾아오지 않음, 엄마와 더 가까이 지내는 자식들, 자식소식을 지인들에게 전해 들음, 전화조차 하지 않는 야속한 자식들, 자식과 연락이 두절됨, 안부전화조차 없음, 소식조차 끊겨버린 자식을 더 이상 찾지 않음</p>	<p>상호간의 연락단절</p>	<p>낮선 존재로 살아가기</p>
<p>유산을 빼돌린 형님과 의절, 형제간의 의리가 깨져버림, 아버지 제사조차 참석하지 않음, 돈이 없으면 가족에게도 인간취급을 받지 못함, 오랜 방랑생활로 친척과 연락이 두절됨, 먹고살기 바빠 연락이 단절됨, 고향에 갈 형편이 되지 않음, 가난한 형편에 찾아가지 못함</p>	<p>고향 등지기</p>	
<p>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생활비를 충당함, 손 빌릴 곳이 없음, 수급밖에는 답이 없음, 몸이 아파서 생계지원을 신청함, 기초생활대상자로 생계비를 지원받음, 빈털터리 신세로 기초수급자가 됨, 신청한지 3년 만에 수급자격을 취득함, 공공근로로 생계유지, 공공근로만이 유일한 대안</p>	<p>수급밖에 답이 없음</p>	
<p>복지관 프로그램 참여를 꺼림, 자격지심으로 새로운 관계형성을 꺼림, 사회적 관계에 당당하지 못함, 모든 게 귀찮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에게 더 열악한 처우, 얘기를 귀담아듣지도 반영하지도 않음</p>	<p>상대적 박탈감</p>	<p>무용지물</p>
<p>노임이 많은 일 갈망, 낮은 공공근로급여로 빈곤의 굴레, 생활력이 없는 노인세대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함, 자식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세대의 비참함</p>	<p>낮은 급여로 생계가 곤란함</p>	
<p>복지관 무료식사로 끼니를 해결함, 통장의 도움으로 주택주거비 보상, 교회의 물질적 도움, 교인의 소개로 일자리를 구함, 단골음식점에서 반찬을 얻어먹음, 주변의 배려로 일함, 사례관리자의 안부전화와 방문이 유일한 위안처</p>	<p>온정의 보살핌</p>	<p>고립의 늪으로부터의 탈출</p>
<p>여물게 살지 못한 삶의 후회,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 자신을 탓함, 가정을 건사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함,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부모도리를 다하지 못해 자식에게 미안함</p>	<p>삶의 재검토와 성찰</p>	

삶에 대해 감사함, 주일 교회에 나가 예배보고 기도함, 남들에게 피해가는 행동을 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살도록 기도함, 건강과 평안을 위해 간절할 기도	영적인 힘에 기댐	자기존재의 인수
건강의 적신호로 좋아하던 술, 담배를 끊어버림, 친구와 매일 산행을 하면서 규칙적인 생활패턴유지, 건강검진과 투약으로 건강한 생활유지, 매일 자전거도보 운동함, 꾸준히 운동함, 건강관리에 힘씀, 규칙적인 생활습관 덕분에 건강한 일상유지, 우울해지면 운동함	심신의 상처 보듬기	
지금 이대로의 삶에 만족함,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이대로 살다 죽고 싶음, 여생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고 싶음, 누구도 해코지하거나 원망하지 않음, 지금 순간이 가장 행복함	홀로 있음을 받아들임	
별이가 좋은 일을 원함, 생계를 위한 노동 욕구, 아직 일할만큼 건강함, 기술은 없지만 일하고 싶음, 아픈 적 없음, 많은 나이에도 체력만큼은 좋음	삶의 의미 재구성	
죽으면 쓸쓸함을 느끼지 못함, 죽음 자체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 건강한 장수의 기원,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음, 삶의 허망함을 깨닫고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음, 자는 길에 죽음을 맡고 싶음, 불쌍한 타인들을 도와주고 싶음,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음	복된 죽음 맞이하기	

2) 홀로 살아가는 경험의 의미와 해석

(1) 가족의 생계를 떠남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로 군 제대 후 중매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구성함으로써 가장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따르는 성역할규범을 구현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정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가부장적 남성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일제해방과 6.26 전쟁으로 피폐해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생존의 출구를 찾아 일찍이 생업전선에 뛰어들었다. 최빈국에서 경제개발도상국으로의 도약을 시작하던 60~70년대 “힘든 농사일 대신 직장을 찾아 도시로 나갔고”(연구 참여자 1.4), “월남파병에 지원하거나 해외건설현장에 뛰어드는”(연구 참여자 2.5)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짊어졌다.

“결혼하고 이를 낳고 그때는 농사짓고 좀 힘이 드니까 무슨 사업을 해보려고 우리 고속 되는 분이 이제 부자고 이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일을 좀 몇 개월 하다가 오고 또 이랬어요.”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들은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낯선 타지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는 희생적인 삶을 감수했다. 커가는 자식들 뒷바라지와 생계에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

기 위해 횡령과 위법행위에 가담하기도 했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자원할 만큼 남성가장으로서 이들이 발현하는 가족에 대한 헌신은 모성적 보살핌과는 분명 다른 방식이었다. 이러한 경험은 가부장적인 유교문화권에서 태어나 성장해온 남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남성적 정체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장권위의 추락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계부양자인 동시에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연구 참여자 일부(2,3)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생활비를 공급하는 돈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가장으로서 위상은 점점 더 위축되었고 가족 내부의 균열과 갈등은 견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돈을 벌기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운 동안 “아내의 불륜행각이 시작되면서 가정을 등한시”(연구 참여자1)하거나 “무분별한 투기행위”(연구 참여자 5)로 살림형편까지 급격히 기울었다.

“여자가 자꾸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내가 돈은 안주죠. 안줘도 뭐 빚을 내서 쓰니까 쓰고 나면은 가정에 쓰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랑 술을 무로(떡으로) 다니고 술값도 외상으로 내한테 들어오는 데...” (연구 참여자 1)

또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던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권위의 토대인 경제기반의 상실로 권위의 추락을 경험했다. “전 재산을 털어 넣은 사업이 부도나 빚더미에 내몰리거나”(연구 참여자 4) “형제가 벌인 사업에 투자한 돈을 몽땅 날려버린”(연구 참여자6)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은 무시와 능멸이라는 짜늘한 반응을 보였다. 생활고로 인한 아내와의 잦은 부부싸움과 자식들까지 자신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자 견고하게 군림할 것만 같았던 가장의 권위는 곧두박질쳤고,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함께 극한의 분노감까지 치솟았다고 구술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능한 존재로 강등된 부성의 자리는 집안 어디에도 설 곳이 없었다.

(3) 극단적인 양가감정

무능한 가장으로 추락한 연구 참여자들은 극단적인 양가감정에 휩싸이는 혼란을 경험했다. 가정만큼은 지키기 위해 “아내의 외도로 생긴 자식의 출생비밀을 홀로 간직하거나”(연구 참여자 1) 이웃들로부터 “바람나 가정을 버린 마누라 남편”(연구 참여자 1), “무능력한 가장”(연구 참여자 4,6)이라는 온갖 비난을 감수해가며 가장의 권위와 위신을 되찾고자 노력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 내부의 문제들을 가급적 집밖으로 표출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 남아있는 남성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그런데 큰아들하고 큰딸하고는 내 아들이 아니거든에. 내 자식이 없을 때.. 고향도 좀 댕기고 뭐 하고 있을 때 그 남자.. 지금 죽었지만은 그 죽기 전까지도 내몰래 관계를 하고 살았어요. 2남 2녀인

데 돌이는 내 그 맞고, 뭐 돌이는 아니다 카는 거 알고도...”(연구 참여자 1)

하지만 어떻게든 가정을 보존하려는 연구 참여자들의 몸부림은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곤 하였다. “여물게 살아오지 못한 자신을 자학”하는가 하면(연구 참여자 5) “가정을 파괴시킨 아내를 죽이고 싶을 만큼”(연구 참여자 1) 극도의 분노감에 사로잡혀 매일 술을 마셔댔고, “가정불화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연구 참여자 6) 등 다양한 심리적 도피수단들을 동원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비록 친밀성에 기반한 신뢰관계는 깨졌지만 ‘가정’이라는 울타리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반대급부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극단적인 양가감정은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고립된 가정의 위기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파국으로 내몰림

극단적인 양가감정을 오가며 심적 압박감에 시달리던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공간은 더 이상 어떤 위로도 안식처도 되지 못했다. “아내에 대한 원망감에 바깥으로 걸돌거나”(연구 참여자 1,4,6) “한 집에서 수년간 각방생활을 하는”(연구 참여자 1,5) 등 가장으로서의 책임에 무기력했고 아내와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심리적 이혼상태였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결코 소통할 수도 다가설 수도 없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방 3칸이 있고, 애 하나 있고, 이제 방을 따로따로 썼다고요, 별거를 했다고, 한 뭐 15년 됐는데.. 그러는데 이제 성격이 그렇게 괘괄하다 보니까..”(연구 참여자 5)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갈등과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해체의 파국을 맞았다. 갈등과 상처로 점철된 가정사에 무력해진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으로서 짊어진 무거운 짐으로부터 탈출하려는 행동양상을 구사했다. “정년까지 보장된 직장에 사표를 내버렸고”(연구 참여자 1) “내 집 장만의 꿈조차 포기해버리며”(연구 참여자 3,6)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힘겹게 지탱해온 가정의 자리를 스스로 해체시켰다. 가부장적 남성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은 연구 참여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분노와 자책의 양극단 사이에서 추락한 가장으로서의 정체성 포기”로 규정된다. 무능력한 가정의 존재는 생계가 곤란한 가족구성원들에게는 부담인 동시에 기초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걸림돌일 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공간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취급받았고 그로 인해 가정해체의 파국으로 내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5) 유사가족 만들기

결혼생활의 파국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빈 몸으로 집을 나와 홀로살기 위한 생존전략을 선택한다. 가족구성원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연구 참여자들도 일거리를 찾아 떠돌이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연구 참여자 1은 일용직 노역을 하며 여관방에서 혼자 생활하였고 연구

참여자 4는 사업실패 후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노숙을 하며 떠돌다 잠자리와 끼니를 제공해주는 한 주유소에 취업을 하였다. 결혼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 3의 경우 이미 유년기부터 거리노숙과 낄뎠이로 떠돌며 혼자서 생활하였다. 연구 참여자 2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일말의 도움조차 청할 친인척 하나 없는 낯선 타지에서 생존의 입지를 만들었다.

“그때는 일거리가 많았어요. 뭐 어디가도, 뭐 해무꼬 또 미화반에도 한 8년 했지. 환경미화원. 아주머니들 같이 데꼬, **에도 일하러 댕겼지. 뭐 그때는 일 많이 했어요. 한 10년 동안은 일 부지런히 했지.”(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들이 타지를 떠돌며 홀로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취한 생존방식은 가족이 아닌 낯선 타인들과 심리사회적 유대를 맺는 이른바 “유사가족 만들기”였다. 일거리를 찾아 떠돌며 홀로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의 유사가족 만들기 전략은 대개 “노동 공간”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직장 동료들과 한 가족같이 생활(연구 참여자 4)을 하는가 하면 일이 없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낚시나 등산 등 여가활동(연구 참여자 1,6)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지지받을 가족도 결혼경험조차 없는 연구 참여자 3의 경우 국내어선을 타며 10년 넘게 동료선원들과 함께 단체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방식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노동력이 지탱되는 한에서 유지될 뿐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불안정한 생계기반조차 상실하게 될 경우 직장동료들과의 유대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6) 대인관계의 위축과 단절

연구 참여자들은 생계기반의 상실 후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나마 유지해오던 대인관계마저 크게 위축되었다. 한 연구 참여자의 표현대로 “가진 돈 없으면 친구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살이 이치”(연구 참여자 4)라는 한숨 섞인 낯두리 속에서 대인관계를 지탱하는데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늠할 수 있다. 특히 남성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이전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적 궁핍은 자존감의 추락과 함께 대인관계의 단절로 이어졌다. “자주 어울리던 동료들과의 술자리조차 끊어진지 오래됐고”(연구 참여자 6) “가까운 지인들의 부고소식을 들어도 돈이 없어 장례식장에 가지 못하는 신세”(연구 참여자 1)로 전락했다. 친한 친구를 사귀다거나 이성과의 교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남성적 위상의 주된 표출수단인 돈, 즉 경제력의 결핍은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을 마음 터놓고 지낼 친구 하나 없는 고립자로 몰아갔다.

“이래 되면 크게 친한 사람도 없이 지내. 내가 이리 있다본게네. 전에는 장사를 하고, 내가 생활을 하고 집이 있고 이럴 때는 집에 놀러오고 이리드만, 인제 전화도 해당이 안 되고.”(연구 참여자 6)

경제적 궁핍에 내몰린 연구 참여자들이 취한 전략은 자신이 몸 담아온 “세계로부터 물러나 홀로 칩거”하는 생존방식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은둔생활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했다. “남의 눈 보기가 창피해서”(연구 참여자 1,5,6), “자격지심 때문에”(연구 참여자 1,3), “사람취급을 하지 않아서”

(연구 참여자 1,4) “어디가든 이방인 취급”(연구 참여자 3) 등 나열한 이유만큼 주위세계와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단돈 몇 천원이라도 손에 쥐지 않으면 집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술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어버리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칩거하거나 동네 사람들 시선을 피해 해 저문 저녁 무렵에 인적이 드문 공원 주변을 맴돌기도 했다. “인생 패배자”(연구 참여자 1,4,5,6)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의 내면에는 이미 부정적인 패배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7) 낯선 존재로 살아가기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과의 왕래는 말할 것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친모와는 왕래를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안부전화 한 통 하지 않고 명절 때조차 찾아오지 않는”(연구 참여자 1,4,5,6) 자식들에게 야속함을 느꼈고, “수년간 소식조차 끊겨버린 자식들의 생사를 남에게 귀동냥할” 정도로 가족구성원들은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혼외자식들은 형편이 어려운 형제들을 외면했고 친자식이라 해도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온 탓에 가족의 정을 느끼지 못했다. 가족과 떨어진 물리적 거리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연구 참여자들의 심리적 거리감은 크게 벌어져 있었다.

“즈이 형제 정도 없자나. 뽀뽀이 헤어져 살면 같이 살 뭐든 다 같이 살아야 정이 있고 그런 거지. 나부터도 같이 애들하고 같이 안사니까 나도 정이 없는데. 보고 싶을 때도 없어. (침묵) 아직은 내가 건강하고 하니깐 다 사람들은 다 몸이 이플 때 보고 싶다는데 난 없어.” (연구 참여자 4)

가족은 신뢰와 친밀성을 기반으로 생사고락을 함께 헤쳐 나가는 혈연체이다. 하지만 일부 연구 참여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각인되었다. “각자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형편도 넉넉지 않은”(연구 참여자 1,5,6)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일은 애당초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자식들 역시 “부담을 주는 부모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연구 참여자 2) 등 부모자식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깔려 있었다. “호적상의 자식들 때문에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연구 참여자 1,4) “호적정리에 응하지도 않는”(연구 참여자 5) 배우자와 자식들의 존재는 무늬만 가족일 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 형제와 친인척과의 관계도 소원해져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8) 무용지물

노동력 상실로 궁핍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급자가 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일할 형편이 되지 않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노령연금과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해 생계를 연명했고”(연구 참여자 1,4,6) 한 연구 참여자는 “몸이 아파서 일용직 노역을 접고 주거비와 생계지원을 받아”(연구 참여자 3) 쪽방촌 단칸방에서 생활했다. 또한 인근교회와 복지관에서 제공받은 무료식사와 반찬서비스로 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의 물질적 도움(연구 참여자 1,3,4,5,6)을 받기도 했다. 군인연금으로 생계 걱정 없이 노년을 보내는 연구 참여자 2를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지원체

계'에 의지해 살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내가 이래 해가지고 누가 말을 해삿는기라. 수급자 같은 거 이런 기나 하라고 낸 그런 거 생전 들어보도 못 했근데. 동에 가가지고 뭐 얘기했드만 공공도 시키주고, 차상위를 만들어 주데.”
(연구 참여자 6)

하지만 낮은 공공근로급여와 노령연금으로는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냉기서린 방에서 지냈고”(연구 참여자 3,4,5), “힘이 들어도 노임이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연구 참여자 1,3,4,6) 노동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디에도 써주는 곳이 없었다.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과 같이 빈곤에 처한 노년세대는 경제적 효용가치를 상실한 무용지물, 즉 사회적 찌꺼기로 간주될 뿐이었다. 더구나 노인을 위한 열악한 지원체계는 존재의 비참함과 상대적 박탈감을 동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노인대상 여가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2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복지관 여가프로그램이나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렸는데, 그 이유로는 “수급자 신분이 드러날까 창피해서”(연구 참여자 3,4) “한글조차 떼지 못한 짧은 가방끈”(연구 참여자 3,6) “자존심이 상해서”(연구 참여자 1,4,5,6) 등 대체로 남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들에게 복지관은 빈곤한 노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이질적이고 문턱 높은 공간으로 느껴진 것으로 사료된다.

(9) 자기존재의 망각

사적지지체계와의 단절과 생계기반의 상실 후 줄곧 홀로 살아가던 연구 참여자들은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예전과 달리 활동량이 줄어든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집안에 틀어박혀”(연구 참여자 1,4,6) 있거나 “대화할 사람이 없어 종일 TV를 커놓고”(연구 참여자 1,2) 지내다가 하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연구 참여자 2), “갑갑한 인생살이”(연구 참여자 1,6)로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렸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에게 외로움은 이미 고질적인 습벽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혼자 있어보이소. 참말로, 답답한 게 한 가지, 두 가지겠습니까? 우짤 뎌 잠도 안와서 빙빙 함 돌아다닐 때도 있고, 자꾸 한 해 한 해 나이도 먹으니께네. 그것도 인자 맘대로 안 돼지네.” (연구 참여자 6)

고립된 삶에 갇혀 지내던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공간에는 고통스런 기억과 비참한 현실을 잇기 위한 중독성 물질이 동반되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연구 참여자 1,6)는 연구 참여자들의 방안에는 빈 술병과 담배꽂이가 널려있었고, 외롭고 적막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위안물이었다. 가혹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일부 연구 참여자들(1,3,6)은 신세를 비판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를 감행했다.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기도 하고 방안에 연탄불을 피우고 잠드는가 하

면 등산로 낭떠러지 밑으로 투신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아이고 마 내가 왜 이래 됐는고 싶어가 죽으빠면 되지. 이것만 생각하다가 죽을라고 몇 번했는데 안 되드라꼬, 알구지. 수면제 뭐 50알 묵고 이래도 안 죽테. 그것도 해보고 연탄 자살도 해보고 몇 번 해봤으.” (연구 참여자 6)

(10) 죽음에 대한 불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립된 삶 속에서 자기존재를 망각한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지만, 그 이면에는 실상 죽음에 대한 불안이 은폐되어 있었다.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로 노동력이 상실되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기 파괴적 행동”(연구 참여자 1,3,6)을 취하는가 하면 “돈이 없으면 아무도 거들떠봐 주지 않기에 만약을 대비해 조금씩 비상금을 모으는”(연구 참여자 3,4) 등 물질적 집착을 보이기도 했다. 존재망각의 표면적 현상이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물질적 집착으로 발현되든지 간에 이러한 경험의 밑바탕에는 주검조차 거두어 줄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쓸쓸하게 맞게 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가장으로서의 권위추락(연구 참여자 4,5,6), 경제적 수단의 상실(연구 참여자 1,4,6), 대인관계의 단절(연구 참여자 3,6) 등 남성으로서 유지해오던 지위와 자존감이 추락하고 아무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자기처방을 시도했다고 사료된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사태는 연구 참여자들의 삶 자체를 무화(無化)시키는 생의 종말사건인 동시에 고립된 삶 한 가운데 피어오르는 실존적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11) 고립의 늪으로부터의 탈출

가급적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고립된 생활을 하던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이 유일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재가사회복지사, 사례관리자, 주거지역의 통장 그리고 교회신도 등과 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온정으로 보살피주는 타인들이었다. 이들은 단지 물질적 지원만을 전달해주는 것 이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상태, 정서적 고민거리까지 일일이 염려해주는 심리적 위안처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처럼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이 오랜 고립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 계기는 자신들 곁에서 상처를 보듬어주는 타인의 “마음씀” 내지 “진정한 배려심”이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마음씀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복잡하게 엉켜버린 생의 흔적들을 재검토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상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1,4,5)은 가족과 친인척 등과 같이 늘 남의 탓으로만 돌렸던 무수한 생애사건들을 자신의 탓으로 인정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3,6)은 “모든 게 내복이고 팔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다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산다 그대 생각을 해야지요. 옛날에 처가 잘못 헛걸 갈다가 그걸 왜 이해를 못하고 사랑을 못 품은게 내가 잘못 한 거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래 내가 험하게 사는 것도 다 내 잘못이라 겠지. 녀를 원망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연구 참여자 1)

(12) 자기존재의 인수

연구 참여자들이 깨달은 자기성찰의 동력은 오랜 세월 방치했던 심신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가능케 했다. 건강의 적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유일한 낙이던 술, 담배를 끊어버렸고”(연구 참여자 2,3), “무료건강검진과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하며”(연구 참여자 2,3,4) “매일 산행과 자전거를 타고 운동”(연구 참여자 1,3,4)을 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건강을 관리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남겨진 여생은 더 이상 찌꺼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볼 가치가 있는 시간이었고, 죽는 순간까지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다.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희망은 ‘노동을 통한 홀로서기’였다. 이러한 바람은 남성적 정체성의 회복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이야말로 자기존재를 인수하는 가장 원초적인 구원방식이라고 해석된다.

“일자리만 주면 누구든지... 몸이 아파 가꼬 일을 못할 거 같으면 그건 도리가 없는 기고, 우리 생각이 나이가 많아도 뭐 20살 몸 아픈 거보다 80살 먹은 노인도 말하자면은, 그거 뭐 건강한 사람 있거든. 건강해 있으면 일을 시키주는기 좋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구 참여자 6)

연구 참여자들에게 홀로 있음은 ‘자기존재의 온전한 떠남’으로 볼 수 있다. “죽음 자체보다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이지”(연구 참여자 1)라는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노년의 홀로 있음을 더 이상 비참한 생의 말로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능성으로서의 홀로서기로 여기고 있다고 해석된다. 노년의 홀로 있음은 그동안 가져왔던 죽음에 대한 관점까지도 전환시켰다. 연구 참여자들은 홀로 맞게 될 죽음, 즉 고독사에 대해 생의 허망함을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연구 참여자 4), 동병상련의 타인들을 향한 연민(연구 참여자 6), 병치레 없는 건강한 생의 마무리(연구 참여자 3) 등 생애의 일부분으로 통합시킴으로써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존재를 떠안고 싶은 생의지의 또 다른 표현으로 사료된다. 이들에게 노년의 고단한 생애경험은 과거와 화해하고 덧난 상처를 치유하는 가운데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3) 핵심범주의 구성

연구 참여자들의 홀로 살아가는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범주는 ‘고립의 늪에서 망각한 자기존재를 인수하고 복된 죽음을 준비하기’로 상정했다. 연구 참여자 3을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부장적 가장권위의 토대인 경제기반을 잃게 되자 아내와 자식들에게 무시와 능멸을 당했고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의 권위와 위신을 만회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구성원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건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 한 지붕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 2와 3을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과의 갈등을 회복하지 못했고 가장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가정해체를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낯선 타지를 떠돌며 홀로살기 위한 생존전략을 구사했다. 낯선 세계에서 만난 타인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일자리가 끊기면 관계도 곧바로 단절되었다. 이러한 삶은 정박지를 찾지 못하고 부유하는 삶이었다. 그나마 유지하던 생계기반마저 상실한 연구 참여자들은 또 다른 생존전략을 취했다. 이미 낯선 존재가 된 가족과의 단절, 대인관계의 위축과 은둔, 무용지물이라는 현실 속에서 유일한 생존방법은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되는 공적인 지원체계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세계와의 접촉을 피해 고립된 삶으로 빠져들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립된 삶 속에서 나름대로 적응해나갔다. 비록 외부의 지원체계에 의지해 생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고립된 삶 속에 머물며 홀로 쓸쓸하게 맞게 될 죽음에 대한 불안 내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도피수단을 찾았다. 때로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거나 때로는 자기 파괴적 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주어진 현실을 왜곡 내지 부정했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존재망각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고립된 일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곁에서 보듬어주는 타인들의 배려를 통해서였다. 그들은 아픈 상처로 얼룩진 연구 참여자들의 유일한 심리, 정서적 위안처였다. 자신마저 부정해버린 존재의미를 보듬어준 타인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연구 참여자들은 심신의 상처를 직면하는 동시에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때의 홀로 있음은 도래할 죽음의 가능성을 자각하고 망각했던 자기존재를 온전히 떠안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고통스런 과거와 화해하고 덧난 상처를 치유하는 가운데 복된 죽음을 준비하려는 삶의 태도를 자기존재의 인수로 해석할 수 있다.

4)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범주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상에 반응하고 대처, 조절하는 전략의 연속적 연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범주기술 후 다시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텍스트로 돌아가 남성독거노인들이 홀로 살아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구 참여자가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홀로 살아가는 과정은 5단계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홀로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생애사건을 취합하여 이를 중심개념으로 삼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추락 단계

연구 참여자 3을 제외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을 이루었고 가장으로서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정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가부장적 남성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식들에게만큼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 생

명의 위협까지 무릅쓰는 희생적인 삶을 감수했다. 하지만 장기간의 해외파견과 잦은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워야 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 외에는 가족들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나마 부양의 책임을 유지하는 한 가정의 지위를 지킬 수 있었고 가장권위의 토대인 경제기반을 상실하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가족구성원들로부터 무시와 능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받았다. 아무쪼록 쓸모없는 무능한 존재로 강등된 부성의 자리는 집안 어디에도 설 곳이 없었다. 이러한 단계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남성가장의 역할상실과 함께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반영하는 추락 단계로 분석된다.

(2) 해체 단계

추락 다음 단계는 존립기반의 해체 단계로 분석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권위의 추락으로 극단적인 양가감정에 휩싸이는 혼란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의 권위와 위신을 만회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혹독한 대가를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노력은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심리적 도피수단을 동원하였고, 가족구성원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견잡을 수 없이 벌어졌다. 한 지붕에 살고 있지만 서로에게 낯설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 2와 3을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구성원들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고 가장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가정공동체의 해체를 경험했다.

(3) 부유와 기생 단계

가장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족해체 단계를 거친 후 연구 참여자들은 홀로살기 위한 생존전략을 구사했다. 일부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를 떠돌며 낯선 세계에서 만난 타인들과 심리사회적 유대를 맺는 이른바 '유사가족'을 형성했다. 여기서 유사가족은 대개의 경우 직장에서 알게 된 동료들로 업무상 관계를 넘어 사적인 일상생활까지 공유하는 관계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방식은 어디까지나 노동시장참여가 지속되는 한에서 유지되며 생계기반이 상실되면서 이러한 유대관계도 곧 단절되었다. 이러한 단계를 부유로 분석된다.

생계기반마저 상실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생존을 위한 기생단계로 들어갔다. 연구 참여자들은 낯선 존재가 된 가족과의 단절, 대인관계의 위축과 은둔, 무용지물이라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였고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되는 공적인 지원체계에 의존하는 생존전략을 취했다. 이 단계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찌꺼기라는 비참한 현실을 처절하게 자각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세계와의 접촉을 피하며 고립된 삶을 유지했다.

(4) 존재망각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고립된 삶 속에서 나름의 적응전략을 구사했다. 한편으로는 건강악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강한 물질적 집착을 보이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술과 담배에 젖어들어 있거나 신세비관 끝에 자살을 시도하는 등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비록 외부의 지원체계에 의지해 생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참여자들은 고립된 삶 속에 머물며 홀로 쓸쓸

하게 맞게 될 죽음에 대한 불안 내지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도피수단을 찾아 빠져드는 존재망각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5) 자기존재의 인수 단계

연구 참여자들의 홀로살기경험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존재의 인수 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어두운 터널과 같았던 고립된 삶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직접적 계기는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 해주고 곁에서 보듬어주는 타인의 진정한 배려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의 도움을 통해 아픈 상처로 얼룩진 생애사건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삶의 재검토와 자기 성찰적 태도는 그동안 방치해둔 심신의 상처를 보듬는 자율적 실천행위로 이어졌다. 이 단계에서 발견되는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점은 규칙적인 생활습관의 회복과 노동을 통한 홀로서기로 구현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홀로 있음을 그 자체로 수용했다. 이때의 홀로 있음은 도래할 죽음의 가능성을 자각하고 망각했던 자기존재를 온전히 떠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홀로 있음은 더 이상 비참한 생의 말로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능성으로서의 홀로서기로 전환된다. 이 단계는 고통스런 과거와 화해하고 덧난 상처를 치유하는 가운데 복된 죽음을 준비하려는 자기존재의 인수단계라고 명명할 수 있다.

5. 논의와 제언

본 연구는 남성독거노인들의 홀로 살아가는 경험에 대한 내용과 과정을 Rennie의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관통하는 핵심범주는 '고립의 늪에서 망각한 자기존재를 인수하고 복된 죽음을 준비하기'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중요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일부(연구 참여자 3)를 제외하고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전통과 가족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남성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깊숙이 내면화한 세대이다. 하지만 경제력의 추락과 가족공동체의 균열로 남성적 정체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가족과 연락을 끊고 단절된 삶을 살아갔다. 장기간에 걸친 사적지지체계와의 단절은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족에게 어떤 도움도 거부한 채 홀로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직된 성향과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기존 연구에서도 홀로 사는 남성노인들이 상처와 결별로 기억되는 가족과 오랫동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허소영, 2009). 이러한 결과는 상실된 남성적 정체성을 대체할 노년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주위세계 어디에도 환대받지 못하는 주변화된 존재로 잔류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짐으로써 주위세계와 친밀한 유대를 맺거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지 않는 경향이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도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축소에 따른 심리, 정서적 문제를 지적(김태연 외, 1999; 백학영, 2006; 심문숙, 2007)했듯이 이들의 관계절취 내지 축소는 우울증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

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도 일부 연구 참여자들이 수차례 자살시도를 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계지향적인 경향을 추구하는 여성독거노인의 경우(양승애, 2002)와 달리 기존의 관계마저도 단절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남성노인(Lynd, 2002)의 고립적 성향은 비단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뿐 아니라 노인복지정책의 거시적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이면에는 노화와 질병으로 쇠약해진 건강상태의 염려와 언제 죽을지 모를 죽음에 대한 불안이 강하게 잠재되어 있었다. 특히 세간에 떠들썩하게 회자되고 있는 '고독사'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면 수일 동안 잠조차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직면해야만 하는 운명적 사건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늘 일상과 의식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는 더더욱 힘들어 수밖에 없다. 자칫 죽음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중한 심리, 정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홀로 살아가는 과정은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무력감 등 부정적인 경험을 동반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은 이러한 절망적인 생애경험들 속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이 생존에 대한 강한 욕구와 함께 삶의 회복력을 되찾는데 영적인 힘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독거노인의 일상생활지원 및 심리,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들의 강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 중 한 사람을 제외(연구 참여자 2)하고는 기초수급자 지위에 있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제적 빈곤층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적인 지원체계에 의지해 먹고 사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 비참함을 호소했다. 아직까지는 일할 능력이 남아있기에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노인일수록 생계비를 보충할 수 있는 일자리의 욕구를 가진다는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된다(백학영, 2006). 남성노인에게 일은 미완으로 남겨진 정체성을 재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자 노년의 홀로서기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의 기회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단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위축되거나 단절된 주위세계와의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을 알려준다. 바로 노동시장의 참여를 통한 '유사가족형성'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남성독거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홀로 사는 남성노인들의 경험과 욕구에 초점을 둔 심리상담, 정보제공, 개입전략이 필요하다. 대다수 노인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어 남성노인이 겪는 고유한 경험과 문제들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특히 홀로 사는 남성노인의 경우 남성으로서 유지해온 가부장적 정체성의 상실 이후 주위세계와의 접촉을 피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등 폐쇄적인 성향을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에 부합하는 심리 상담과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남성독거노인들의 생애체험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새롭게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력 상실과 사회적 지지체계의 단절로 홀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극심한 심리, 정서적 폐해를 경험했고, 그로 인한 과도

한 음주와 흡연, 급기야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자기 파괴적 행위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남자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어려움을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었다. 때문에 이러한 남성독거노인들의 심리, 정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산이 조각난 생애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의미치료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셋째, 남성노인의 특성상 문제해결 중심과 활동성을 통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여성중심의 여가활동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집단프로그램과 남성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을 제안한다.

넷째, 연구결과를 통해 홀로 사는 남성노인들을 다시 일어서게 한 ‘강점’, ‘힘’ 그리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들의 노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적인 활동과 연계된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공적인 지원체계구축을 제안한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노인에게 일의 의미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회적 찌꺼기라는 낙인을 벗어나서 건강한 일상적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강점과 가능성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관·민의 협력체계를 통해 전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해석학적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남성독거노인의 홀로 살아가는 경험의 구체적 과정과 내용을 총체적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했으나 6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사례에 한정되어 자료수집의 원칙인 포화상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독거기간에 따른 홀로 살아가는 경험의 집단별 차이와 역동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밝혀내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연구자의 한계이지만 후속 연구자들의 연구문제로 남겨놓고자 한다.

참고문헌

- 권지성, 2008, “쭉방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사회복지학』, 60(4): 131-156.
- 김기태·박봉길, 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 지지망-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0(1): 153-168.
- 김미영, 1997, “독거노인의 건강기능상태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 94-105.
- 김인순, 1999, “독거노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석 역, 2000, 『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 Pampel, F. C., 1998, Aging,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나눔의집.
- 김주성, 1999, “영세독거노인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1(2): 27-239.
- 김태연·박진화·권정미·김건희·신호정·이진희·지혜진·김경원·신경림, 1999, “독거노인의 체험연구”, 『이화간호학회지』, 32: 84-97.
- 김효진, 2009, “영등포 쭉방촌 주민들의 삶과 도시빈민공간으로서의 기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숙, 2000,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 『한국 사회학』, 34: 621-647.
- 백학영, 2006,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31(3): 5-39.
- 보건복지부, 2012,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민경, 2004, “쪽방노인의 생활실태에 따른 정책제안 연구: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문숙, 2007, “저소득 독거노인의 생활경험”,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1(2): 171-181.
- 양승애, 2002, “독거여성노인의 일상체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엄태완, 2007, “노인 자살관련 요인: 무망감과 우울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 통제감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2): 335-379.
- 원미라, 2013, “여성독거노인이 우울증 경험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광수·박현선, 2003,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 23(40): 163-179.
- 이가옥, 1994,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영양학회지』, 27(4): 387-402.
- 이호영·백학영, 2003, 『홀로 사는 가난한 노인들: 서울시 독거노인 실태보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임혜영·이혁구, 2013, “미혼모의 입양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3): 53-78.
- 전길양·김정옥, 2000, “배우자 사별노인의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155-170.
- 전용화, 2006, “농촌지역 저소득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희·오영희·석재은·도세록·김찬우·이윤경·김희경, 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옥, 1999, “독거노인생활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천과학대학논문집』, 71-81.
- 최영, 2008, “독거노인의 경제수준,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4(4): 103-123.
- 최용민·이상주, 2003, “사회적 지원망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2: 193-215.
- 허선영, 2003, “저소득층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생활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소영, 2009, “쪽방지역에 홀로 사는 남성노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미영, 1999, “도시 저소득층 노인의 비공식 지지망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9(20): 27-46.
- Charmez, K., 200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London: Sage.
- Davidson, K., Ginn, J., and Arber, S., 2003, *Gender and Ageing: changing and relationships*, Open University Press.
- Glaser, B., and Strauss, A., 1967, *Discovery of Ground Theory—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NY: Aldine Publishing.
- Hughes, M. E., and Waite, L. J., 2002, “Health in household context: Living arrangement and health in late middle ag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 1-21.
- Levitt, H., Bultler, M., and Hill, T., 2006, “What clients find helpful in psychotherapy: Developing principles for facilitating moment-to-moment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 314-324.
- Lynd, M. H., 2002, *Living Alone: A Lived Experience of Elderly Men and Elderly Women*, Ohio University: Chillicothe.
- Rennie, D. L., 200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s methodical hermeneutics: Reconciling realism

- and relativism”, *Theory and Psychology*, 10(4): 481-502.
- _____, 2006, “Embodied categorizing in the grounded theory method”, *Theory and Psychology*, 16(4): 483-503.
- _____, 2007, “Methodical hermeneutics and humanistic psychology”, *The Humanistic Psychologist*, 35(1): 1-14.
- Rubinstein, R., 1987, *Singular Paths: Old Men Living Alone*,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Russell C., 2007, “What do older women and men w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lived experience of ageing”, *Current Socially*, 55(2): 173-192.
- Smith, J., Borchelt, M., Maier, H., and Jopp, D., 2002, “Health and well-being in the young old and oldest old”, *Journal of social Issues*, 58: 715-732.
- Strauss, A., and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CA: Sage Publication.
- Victor, C., Bowling, A., Bond, J., and Scrambler, S., 2002,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Living Alone in Later Life*, United Kingdom.

The Study on the Living-Alone Experience of Elderly Men

Seok, Heejoung
(Kyungnam University)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economical, psych-social, physical pains of the elderly mens living alone and the process being out of the isolated life. From this, we expect to propose a supportive program to help the living alone of the elderly mens. Six of the elderly mens living alone joined this research and the hermeneutical grounded theory methodology was applied to interpret it. Data were collected by the depth interview and various written records and they were analyzed by Rennie(2007)'s methodology.

We could construct 13 categories by analyzing and categorizing meaningful units of the data. The core theme of the living alone experience was presented as "Accepting self-existence forgotten in the swamp of isolation and preparing for the blessed death." Based upon the research outcomes, we suggested a social supportive program considering the elderly men's characters and a way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the therapy system for the elderly mens living alone and the need for a meaning therapy.

Key words: the elderly mens living alone, hermeneutical grounded theory methodology, meaning therapy.

[논문 접수일 : 14. 03. 14, 심사일 : 14. 04. 09, 게재 확정일 : 14. 06. 16]